



(주)디디스토리 박정훈 대표이사 “UV 디지털 라벨 인쇄기 Tau 330 런칭” “라벨 인쇄사 경험 살려 최적의 솔루션 공급”

라벨 인쇄 전문 업체인 (주)세롬(대표이사 박정훈)이 UV 디지털 라벨 프레스(Tau 330, Tau 330/200)와 레이저 후가공기(LFS 330)를 판매하기 위해 유통조직 (주)디디스토리를 설립하고 지난 10월 15일 그랜드엠베서더 호텔에서 Tau 330 런칭쇼를 개최했다. 런칭쇼에서 박정훈 대표이사는 라벨 인쇄사를 경영하는 인쇄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 라벨 장비 업계에 출사표를 내민 (주)디디스토리의 박정훈 대표이사를 만나 디지털 장비 업계 진출 배경과 향후 목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주)디디스토리와 (주)세롬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디디스토리의 모체가 되는 (주)세롬은 라벨 전문 인쇄 업체입니다. (주)세롬이 Durst사의 Tau 장비를 직접 도입해 활용하다 Durst사의 UV 디지털 라벨 프레스(Tau 330, Tau 330/200)와 레이저 후가공기(LFS 330)를 판매하는 유통조직으로 (주)디디스토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Durst사와의 협약을 통해 Tau UV 디지털 라벨 프레스 장비에 관한 모든 국내 유통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됐습니다.

인쇄인으로서 (주)디디스토리는 장비 유통사를 설립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주)세롬을 경영하면서 아날로그 인쇄방식만으로는 다양하고 화려하게 변화하는 라벨의 인쇄품질과 재고관리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노무시간의 증가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빠른 인쇄 속도와 다품종 인쇄에서의 적응력, 무엇보다도 작업공정이 줄어드는 장점을 보유한 디지털 인쇄 방식을 도입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외 전시회 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디지털 라벨 인쇄기를 접했고, Durst사의 Tau 시리즈를 알게 됐습니다. 그후 국내 에이전트들과

접촉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과 너무 떨어지는 신뢰도 때문에 결국에는 Durst사를 통해 장비를 직접 구매하게 됐습니다. Durst로부터 장비를 직접 구매하기까지 많은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장비 적합성에 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인쇄업체가 보다 나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를 도입할 때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유통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주)디디스토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지속적인 A/S,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디지털 라벨 프레스 시장의 활성화와 인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au 시리즈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Durst사의 Tau 장비는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력 모델인 Tau 330의 특징점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분당 48m의 속도로 타 장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프라이머 처리가 필요 없으며, 일반 종이부터 PP, PE, PET, SY, 타이어라벨, 투명, 호일, 도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소재가 매우 다양합니다.

내광성과 내구성이 높은 Durst UV 잉크를 사용해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하며, Durst사에서 개발한 No-migration 잉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음식이나 의약품에 닿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링, 바코드, QR코드, 연속데이터, 연속이미지 등의 가변데이터 인쇄는 기본이며, 영문뿐만 아니고 한글도 지원합니다. 다이커팅 처리된 이미지나, 블랭킹 작업이 된 라벨 등의 인쇄물에 센서를 읽혀 추가적인 인쇄가 가능하며, Tau 330에서 프리프린팅 작업을 한 후 추가적인 인쇄 작업도 가능합니다. Durst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DFE 소프트웨어는 기초적인 기계 구동 및 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며, 이미지를 내부폴더에 저장한 상태로 언제든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각 용지에 가장 알맞은 색상이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프로파일링 작업을 통해 모든 '팬톤컬러' 및 고객들이 원하는 색상을 직접 만들어서 가장 알맞은 색상을 찾아 인쇄할 수 있습니다. Durst사에서는 지속적으로 Tau UV 잉크젯 라벨 프레스에 대한 R&D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좋은 품질의 인쇄와 장비 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업그레이드 지원 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Tau 330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우선 도입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세롬에 설치해 있는 장비에서 직접 샘플 인쇄를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Tau 330 디지털 라벨 프레스와 LFS 330 후가공기의 성능 확인과 인쇄 품질, 적합성에 대한 테스트를 원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디디피스토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 고객사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비의 문제로 인한 생산 및 납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고객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대의 장비

를 도입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장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주)세롬에는 5명의 오퍼레이터와 2명의 A/S 담당자가 있으며, 이들을 통해 Tau 330과 LFS 330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장비 설치 이전에 미리 1~4주의 설비 가동 교육 및 노하우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장비 도입 후에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기마다 설비 도입 협력사들과 함께 설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세롬의 Tau 시리즈 도입을 통해 축적된 장비 운용 및 A/S에 관한 노하우를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LFS 330 후가공기를 통한 샘플북을 제작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디디피스토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 및 비전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인쇄시장에서 디지털 잉크젯 라벨 프레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쇄인들이 디지털 인쇄의 장점을 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프리미엄 라벨 프린팅'을 주제로 해 더 많은 인쇄인들이 고품질의 인쇄물을 쉽게 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디디피스토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그리고 (주)디디피스토리를 중심으로 구매 고객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키페스2014에 참가해 Durst사와의 협의를 통한 국내 최초 인라인 설비 시스템인 Tau 330 + LFS 330의 시연회를 개최해 국내 고객들의 인식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한강로2가, 한강현대하이텔 1010호)

전화 | 02-6339-7086 팩스 | 02-6407-7086

홈페이지 | www.ddpstory.co.kr



10월 15일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Tau 330 런칭쇼 및 인쇄샘플